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최고'

●호남동계청 '4월 광주·전남소비자물가동향'

전년비 광주 3.3% ↑ 전남 3.2% ↑ 고물가 지속
채소·과일·공공요금·상승,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에 이어 부산·인천·울산·전남(3.2%), 서울·대전(3.1%), 강원·전북(3.0%)이 대체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다.

이 같은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으로는 신선식품, 공공요금, 기름값, 외식비 등이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18.5%

%, 신선채소·과실류도 4.2%, 45.6%가 올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168.8%), 사과(94.0%), 참외(29.8%), 오렌지(20.1%)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채소류도 양배추(54.8%), 배추(24.1%), 오이(18.4%), 당근(13.7%)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지출목적별로는 수입승용차(7.8%), 도시가스(5.0%), 전기료(4.3%), 휘발유(2.8%)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부문에서는 떡볶이(13.8%), 생선회(4.3%), 돼지갈비(4.1%), 치킨(2.8%) 등의 외식비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전남지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9(2020년=100),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 과일·채소류도 지난해보다 각각 15.6%, 37.1%, 10.7% 올랐다.

과실류 가운데서는 사과(91.8%), 배(83.6%), 키위(29.6%) 등이 크게 치솟았다.

고 채소류도 양배추(53.2%), 배추(31.6%), 당근(26.8%), 토마토(20.9%)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도시가스(6.1%), 공공주택관리비(4.9%), 전기료(4.3%) 등 공공요금과 택시료(19.7%), 수입승용차(7.8%), 휘발유(2.6%) 등의 교통부반도 올랐다.

채물가반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해 4월과 대비해 각각 3.6%, 4.0% 상승 폭을 보였다.

/안태호기자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 출시 KT가 OTT 구독료 부담 완화를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신규 구독팩을 출시하고, 5G 증가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유튜브 프리미엄+스타벅스' 구독팩을 홍보하는 모습. <KT 제공>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업 전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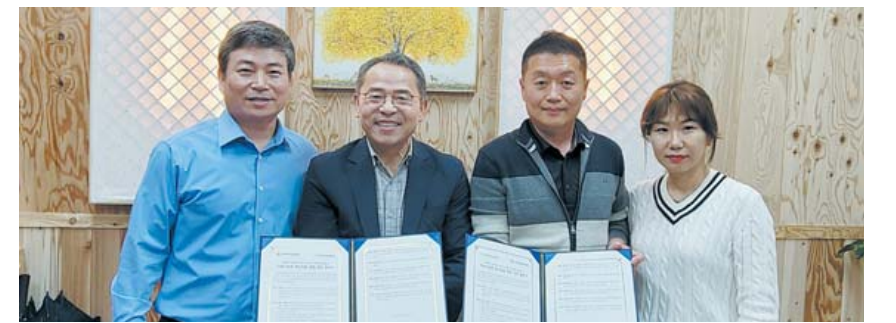
전남환경산업진흥원·초계영농조합법인 업무협약

(재)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일 “지난달 29일 초계영농조합법인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축분뇨처리사업 활성화 및 운영·관리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구개발사업 추진 ▲자원 정보 교류 ▲공동활용을 통한 성과확산 등으로 지속가능한 환

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순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슬기자



금호타이어,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북미 리뷰뉴스 선정

금호타이어가 북미 리뷰뉴스(Rubber News)에서 선정한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2024 Best Place to Work)'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일하기 좋은 기업(Best Place to Work Top 9)”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Workforce Resource Group)’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약 1천여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내 문화와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주관한 리뷰뉴스는 타

이러 포함한 전체 고무 산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European Rubber Journal), 플라스틱 뉴스(Plastics News), 타이어 비즈니스(Tire Business)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Kumho America Technical Center)'는 1900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Akron)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처드 쿠나(Richard Cunat) KATC 소장은 “금호타이어는 공정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엔지니어들이 제품 개발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2년 연속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사람 중심의 회사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호타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광주은행 '퇴직연금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작년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광주은행은 2일 “2024년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최근 1년간)이 연 17.58%로 은행권 1위, 전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포함) 중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비교에서 2분기와 3분기에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1위, 4분기에는 은행권 1위를 각각 달성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2024년 1분기말 기준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최근 1년간)은 17.58%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평균인 13.42% 대비 4.16%p(포인트) 높은 수익률로, 광주은행의 탁월한 퇴직연금 상품 운용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퇴직

연금 수수료를 5%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은행 배인명 신탁연금부장은 “퇴직연금 ETF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님들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통해 고객님들의 풍요로운 노후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 store